

명량해상케이블카 8월말 개통 '순조'

핵심 공정 메인 와이어로프 설치 시작... '울돌목 회오리' 등 해상서 만끽

명량대첩의 전승지인 울돌목 해협을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가 오는 8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주)울돌목해상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설치의 핵심 공정인 메인 와이어로프 설치 공사가 시작돼 8월 말이면 명량대첩의 울돌목 바다를 바로 위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는 58mm 굵기의 메인 로프를 중심으로 28mm, 18mm 등 5개의 보조 로프를 엮는 와이어로프 설치 공사가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보조 와이어로프 포설 공사를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설치하면서 케이블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명량해상케이블카 제작사이자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을 선도하는 오스트리아 100년 전통기업 도펠마이어사(社)는 울돌목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작업의 난이도, 안전성을 고려해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최고의 엔지니어를 파견했다.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외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총길이 960m로 건설된다.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몰리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로 해남과 진도의 경계를 흐르는 길이 2km의 수로이다.



한반도 끝자락인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주)울돌목해상케이블카 제공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거칠어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해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물살의 속도가 최대 11노트(시속 22km 안팎)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바다이다. 회사 관계자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열

리는 명량대첩축제가 8월 말 명량해상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명량대첩 감동과 울돌목의 회오리 바다를 하늘에서 만나는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문화도시 추진 박차

추진위 발대식

신안군이 지난 4일 제4차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신안군 문화도시 시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신안문화원 주재배 원장,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 한국예총 신안지회 및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별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박 군수는 발대식에서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섬, 컬러의 섬, 1도(島)1무지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역점사업의 최종 목표는 섬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라



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월 신안군 문화도시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을 거쳐 '섬·해양문화도시 신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6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신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된 주재배 신안문화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거버넌스 위원으로는 신안예총, 마을학교 등 14개 단체 대표들이 위촉되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자 노트

삼학도 호텔 건립, 전·현직 시장 대립각

목포시가 추진하는 삼학도 호텔 건립사업에 차기 시장선거 출마가 확실시 되는 전직 시장이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삼학도가 호텔부지로 적합하다는 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 위상과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흥을 전 시장은 "지난 1976년부터 45년간 1400억 원이 투입된 복원화 사업 성격과 호텔건립은 동떨어진 발상이며 바다 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삼학도 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선 박흥을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전 목포시장)은 "삼학도는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삼학도 경관을 보호하는 확실한 장치도 없이 고층 호텔이 세워지면 삼학도 경관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삼학도 인근 남항과 어민동산 하단부 복합 유원지,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 중인 장좌도 등을 대해 부지로 제안했다.

박 전 시장은 "술한 형세를 쏟아 부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고차 호텔업자를 위한 결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식 시장은 "삼학도 유원지 사업이



박 중배 제2사회부 부장

복원화 사업의 완성이고, 관광거점 도시 위상과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호텔건립 사업을 정치 쟁점화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삼학도 호텔 건립을 두고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찬·반 대립에 가세하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삼학도는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같은 날 삼학도보전회(환경권 소속회)는 "복원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목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맞붙는 전·현직 목포 시장이 삼학도 호텔 건립사업을 두고 시각을 달리 하면서 정치 쟁점화 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불도저식으로 호텔사업을 밀어 붙이는데는 호텔업자가 이미 내정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스멀스멀 새어나오고 있다.

명심할 것은 삼학도 호텔사업이 잿밥 때문에 건립 취지가 흐려져서 안된다는 점이다. 시민공론화를 통해 부지의 적정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pjb@kwangju.co.kr

완도 비파 와인 '남도 전통주' 최우수상



완도 비파 와인이 '2021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품평회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으며 박복담 한국전통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참석했다.

16개 업체, 25개 제품의 맛과 향, 색상, 후미 등 관능 평가와 우리 농산물 사용 실적, 술 품질 인증 획득 여부 등에 대

해 심사했다. 비파 와인은 비파를 착즙해 완도비파영농조합만의 제조 방법으로 효모를 첨가해 발효, 숙성시켜 투명하고 아름다운 황금색을 띤다. 비파 와인은 완도에서 재배된 비파만을 사용해 은은한 향과 풍부한 감칠맛,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비파는 4~6월에 수확한 황금색의 아열대 잡살이(웰빙) 과수로 과즙이 많으며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 끌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현대삼호중 전 직원에 '백신 휴가' 협력사 등 1만1000명 최대 4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평환)이 회사와 사내협력사 전 직원 1만1000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유급휴가는 백신 접종 당일과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2차 접종까지 감안하면 최소 이틀에서 최대 4일이다. 대상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백신 접종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특히 사내협력사가 유급휴가에 소모되는 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내 생산과 설계 협력사 직원은 총 7400여 명에 달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래 사내 출입자 체온 측정, 정기적인 소독과 홍보, 회사 직원과 선주선급,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조사(사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슬기로운 광주 탐구 광주학 光州學

- 광주학, 어디까지 왔나?
- 광주를 담은 책들
- 전문가가 말하는 '광주학 발전 과제'
- 대중가요에 비친 광주

기획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그리웠던 걸작들 예향 찾아온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⑥
부드럽게 흐르는 예술의 언덕 스페이스K 서울

클릭, 문화현장⑥
스테인드글라스 불화, 로터스 갤러리 예술향기 그윽한 사찰 무각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희극인의 길 47년 칠순의 현역 개그맨 이용식

예향 초대석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감독 이정국

"5월 광주는 내 영화인생의 원동력"

문화 트렌드
한복의 전통과 진화 보여주는 두 전시

전시 화제
'Save Myanmar' 광주의 뜨거운 예술 연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①-프로그

천년고찰이 품은 시간과 이야기 속으로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리얼리티 프로그램 정말 리얼할까?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③
재즈 인디밴드 'SOOF'

새로써 남도 한 바퀴-목포
인간 유적, 구대 역사 공간 목포 시안역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 흔적 -비타식르리의 명소